

상무지구 한 곳서만 7명 확진...유형업소발 악몽 재현 우려

코로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빠른 속도로 번져

광주·전남서 지난 25일 하룻동안 46명 확진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사적모임 4명까지

광주·전남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대표 유흥가인 상무지역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유흥업소발 대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완도 소안도에서 주말·휴일 사이 13명이 잇따라 감염되는가 하면 대불산단 조선소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파속도가 기존 대비 1.64배 이상 빠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지역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휴가·방학철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13명이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3276명으로 늘었다. 광주 기준 확진자 관련 6명,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2명,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2명, 서울 강남구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1명, 해외유입 1명 등이다.

특히 지난 25일 상무지구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날 확진자의 동료인 여성 4명과 손님 2명이 추가로 감염돼 유흥업소 관련 감염자는 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긴급하게 유흥업소 건물 내 종사자 2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통보하고, 밀접 접촉자 14명은 자가격리했다. 방역당국은 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지난 20

~23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 등을 방문한 이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유입 이후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함에 따라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 25일에도 광주시 본청 소속 공무원(생활치료센터 근무)을 포함해 18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광주시 본청 소속 공무원의 확진 사례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신규 환자 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포함됐으며, 대형 제조업체 직원도 확진돼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주말인 지난 24일 16명, 휴일인 25일 28명 등 주말과 휴일 동안에만 44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월요일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명 나오면서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950명이 됐다. 현재 전남도 방역당국은 최근 사흘 동안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터져 나온 완도 소안도와 이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영암 대불산단을 주시하고 있다.

완도 소안도에서는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 발생 이후 주말 휴일 동안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이 주민 24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소안도 감염자 가운데 일부가 광주 유흥업소에 최근 다녀온 사실을 주목하며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영암 대불산단 조선소에서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조선소 근로자 370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수에서는 병설유치원 관련 n차 감염자, 경기·대전·제주 등 타지역 방문 후 확진자,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등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내고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방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무더운 여름,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새벽 0시부터 8월 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100명에서 50명 미만까지만 모임 수 있다. 또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공연은 정규모형시설 외에선 개최할 수 없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모든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선관위원장-후보캠프 총괄본부장

일시 | 7. 26. (월) 10:2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민주 선관위원장-후보캠프 회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후보캠프 총괄본부장 연석회의에서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임근재 김두관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안구백 정세균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박광온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백순환 박용진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강희용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연합뉴스

송영길 “다시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선 안돼”... ‘막장 네거티브’ 제동

내일 후보자 간 원팀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대선 경선이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른바 '백제 발언' 충돌과 관련해 "다시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문재인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

의 강을 건넜다"며 "더는 (지역주의가) 발붙일 곳 없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고 촉구했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도 이날 각 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의 연석회의를 소집, "선을 넘은 불쌍사나운 상호공방을 즉각 멈춰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선관위원장은 특히 "지역주의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한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라며 자제를 촉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당장 캠프 징계 수위를 논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아직 경선 초기인 만큼 경쟁 과열 양상을 가라앉히고, "정책 대결"로 방향을 트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여섯 분 후보자의 캠프 총괄을 맡는 본부장과의 회의에서 최근 상호공방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공방을 중단하자는 데에 후보자들과 캠프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현안에 대한 해법, 미래 개척 여건에 각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캠프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상호 비방이 이어질 경우 당이 취할 조치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자리인데 '너'가만 안 돌 거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냐"고 답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는 28일 후보자 간 원팀 협약식이 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과열 양상이) 조금 진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강력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26.9%, 이재명 26%
이낙연 18.2%, 최재형 8.1%

KSOI,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며 '10% 고지'에 다가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은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6.9%, 이재명 경기지사는 26.0%로 각각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전주에 비해 3.4%포인트 떨어졌고, 이 지사는 0.6%포인트 오르면서 양측의 격차는 4.9%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바뀐 좁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포인트 내린 18.2%였다.

최 전 원장은 8.1%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5.6%)보다는 2.5%포인트, 2주 전(2.5%)보다는 5.6%포인트 났 것이다.

이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4% 오른 4.7%로 5위에 랭크됐고 유승민 전 의원이 0.5%포인트 오른 2.8%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 5위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0.9%포인트 하락(3.4%→2.5%)하면서 7위로 밀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 판결 확정과 관련된 당 대표 시절 수사 의혹 '원죄론'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2.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0%, 박용진 의원 0.8%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